

대한건설

2014년 8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 이끄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기계직사무관 총원 절실하다

주무관 1명이 기계설비 대변... 힘에 부치고 목적 달성 어려워
건물에너지사용 7%, 年27조 소비... 투입 빠를수록 국가 이익

저탄소녹색성장,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소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 기계직사무관 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녹색건축과 8명(파견1명 포함)의 인원 가운데 행정사무관 1명, 건축사무관 1명, 도시사무관 1명에 기계직은 고작 주무관 1명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73%를 차지, 금액으로 연간 27조원을 소비하는 기계설비를 대변하고 있다. 녹색건축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계설비부분을 주무관이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안팎의 이야기다.

기계설비업계는 건축물에서 에너지소비량이 가장 많은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계직주무관 1명에게 녹색건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계설비업계는 녹색건축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계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직사무관 정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기계직사무관 총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온다고 잘라 말했다.

기계직주무관에게 기계설비를 대변하고 방향설정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는 물론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녹색건축과 내 기계직주무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 신재생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설비규칙, 조경기준, BEMS,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71%를 차지하는 기계설비의 에너지효율과 품질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결국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만큼은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업계는 기계설비의 성능 및 품질향상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 공사비 증가와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국가적인 시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급수·급탕·난방·환기·자동제어·지열냉난방·열절연공사 등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구성, 건축물의 심장이라 부른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 지난해 에너지수입액이 무려 1,486억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25%를 차지, 금액으로는 383억불이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 그리고 급탕을 다루는 기계설비는 71%를 차지, 2013년 기준 약 270억불(27조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건축과에서도 기계직사무관 총원을 몇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관은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물론 녹색성장,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적 사업인 만큼 기계직사무관 총원 문제를 면밀히 검토,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녹색건축과는 작년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됐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6.9% 감축키로 한 목표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